

시론

‘발키리’의 추모와 신사참배

1944년 7월 20일, 지금의 폴란드에 위치한 늑대소굴(볼프스산체)의 총통 본영에서 폭탄이 터졌다. 독일군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이른바 ‘발키리 작전’이라고 불리는 히틀러 암살 작전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폭발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목숨을 구했다. 히틀러를 축출하려던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을 비롯해 독일 군부의 거사는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가담한 군인 등 수천명이 대부분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사형에 처해졌다.

지난 7월 21일 베를린에서는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발키리 거사 75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참석해 이들을 추모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극우 극단주의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모든 경향에 맞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역사적 교훈이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범국의 총리로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다시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이 또 다른 전범국 일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각료들은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000명의 영령을 기리는 곳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식민지배를 통해 저지른 국가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천왕 폐하 만세’를 외치며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탄압과 약탈을 자행했던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추모의 대상인 것이다. 최근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며 되레 반도체 핵심 부품의 수출 통제 등 ‘경제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언급한 ‘역사적 교훈’을 일본 정치인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74년 전 광복절의 함성과 35년간 나라 잃은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태자유민주연맹 원탁회의 참석



김평환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8월 15~18일, 대만 타이페이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자유민주연맹(APLFD)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아태지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APLFD 20여 회원국 대표단 50명이 참석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평환 사무총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자총은 지난 6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평화통일을 선도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경제번영 그리고 평화정착에 이바지하고자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 및 지역안보,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세션별 토론에 참여하고 대만 정부시설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신가치관 정립 국민운동 연구회 4차 워크숍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8월 6일(화) 본부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신가치관 정립 국민운동’ 연구회 4차 회의를 갖고 ‘국리민복’ 가치관 정립 교육 지침서 최종 편집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원택 위원장을 비롯해 연구회 위원 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각 위원들이 각자 맡은 영역을 발표하며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현재 사회갈등의 치유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봉사를 통한 배려, 나눔, 상호 존중하는 선진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범국민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지침서를 집필 중에 있다.



자유수호 평화걷기



전국시도청년협의회(회장 장기식)는 8월 11~14일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자유수호 평화걷기’를 개최했다.

정치중립심사평가위 회의

한국자유총연맹은 8월 6일 본부 회의실에서 정치중립심사평가위원회 회의를 갖고 ‘경제침략 아베정권 규탄대회’ 행사의 정치중립 여부를 심의했다.

COVER STORY

흔들리는 자유무역

자유무역과 세계경제 | 김승욱
지구촌 곳곳 무역 분쟁, 세계 경제를 위협하다 | 김상훈
보호무역은 부활하지 않는다 | 조동근

- 8·15광복 특집** 일본이 말하는 ‘戰後 국제질서’ 분석 한일 갈등 해법은 없나 _ 최익재
- 긴급진단** 일본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 한일 갈등 조기 해결 위한 지혜 모아야 _ 정인교
- 전인범칼럼** 정전협정 66주년을 되새기며 남북 간 신뢰 증진 방안 실천되길 바라 _ 전인범
- 사회비평** ‘사실에 기초한 세계관’을 향하여 _ 신중섭
- 포커스** 가짜뉴스와 미디어교육(下) 손쉬운 처벌보다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해야 _ 이봉현
- 시사진단** 2020년 미국 대선과 북핵 미 대선 과정서 전개될 상황변화에 대비해야 _ 전성훈
- 집중분석**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 이념에 치우친 교육은 국민통합 저해 _ 김창남
- 경제칼럼** 폭염의 경제학 _ 박유연
- 북한 바로알기** 선전선동과 이미지 조작... 일그러진 북한 언론 실태 _ 이영중

• 편집실 ☎ 070-7122-8042

자유마당
VOL. 121 AUGUST 2019
MONTHLY MAGAZINE

8
COVER STORY
흔들리는 자유무역
8·15 광복 특집 | 일본이 말하는 ‘戰後 국제질서’ 분석
포커스 | 가짜뉴스의 미디어 교육